

# 제주도 민속자료로 지정된 瓦家の 가사노동공간 분석

— 정지·챗방·고팡을 중심으로 —

## An Analysis of Household Work Space of the Waga, a Roofing Tile System Authorized as Historical Preservation Units of Jeju Province

— Focused on Jungji, Chatbang and Gopang —

이 정 립\*      김 봉 애\*\*  
Lee, Jeong-Lim      Kim, Bong-Ae

###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a new interpretation of the Jeju province Waga, authorized as Jeju province Folklore, in the context of lifestyles of residents distinctive in the Jungji, Chatbang, and Gopang system. Study results uncovered that (1) only one Jungji, a traditional house kitchen, exists in one house boundary, in the form of detached building in the 4 units of Gaok (K-2 Gaok, K-3 Gaok, C-1 Gaok, and C-2 Gaok) (2) Chatbang had multifaced-functions; as a place for diet for mistress and children, a place for preparing meals for a mister who diet in the room, and as an auxiliary meal-preparation facility in time of domestic celebration day. (3) Gopang was mostly a place for grain storage, and K-3 Gaok has one unit, K-1 Gaok, C-1 Gaok, and C-2 Gaok had 2 units, and K-2 Gaok and H Gaok had 3 units of Gopang. (4) Jungji and Chatbang were correlated for meal preparation and diet while activity-line of flow was divided each other. (5) Jungji and Gopang were located at the opposite edges of each house, revealing no consideration of indoor activities. (6) The ratios of space of Jungji, Chatbang and Gopang out of the whole house space were, average 23% in the case of Jungji located in the inner house, and average 37% in the case of Jungji located in the detached building, average 14% larger in the case of detached Jungji system.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주거형태에 따른 공간분화는 이미 고대국가부터 형성되었다. 사람이 기거하는 곳과 가축을 기르는 곳, 곡식을 보관하는 곳, 물건을 보관하는 곳 등이 여러 채의 건물로 나뉘어 사용되었고, 유사한 성격의 행위는 근접한 곳에서 이루어졌음이 문헌이나 벽화를 통해 고증

되고 있다(강영환, 1993).

현대 주생활의 행위유형은 크게 개인생활, 가족공동생활, 가사작업생활, 생리·위생생활로 나뉜다. 그 중 가사작업생활은 세탁·조리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러한 행위는 가사실, 다용도실, 부엌에서 이루어진다. 池邊陽(1955)의 분류에서는 서비스야드·뒷문·세탁실·부엌·배선실·식당을 가사노동권으로 분류하고, 梁瀾度子(1995)의 생활공간 구성모델에서도 가사작업공간이 다른 생활 행위와 분리되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경희 외(1994)는 음식준비·식사·세탁 등의 작업

\* 정희원, 제주관광대학 실내건축과, 전임강사

\*\* 정희원,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학술박사

과 취미공간으로서 부엌·식당·다용도실·가사실을 가사노동공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 전통주거도 행위에 따른 공간 분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목할 현상으로 보인다. 정지·챗방·고팡이라는 가사노동공간이 있었고, 행위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현대 가사노동의 행태와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 전통 주거형인 안·밖거리형<sup>1)</sup>이 현대의 삼세대 동거형 주택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통적인 가사노동공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대표적 공간인 정지·챗방·고팡에서 나타나는 특이성을 생활양식과 결합시켜, 각 공간에 대한 위치, 기능, 방위, 동선, 면적비율을 분석하여 제주도 와가의 가사노동공간의 특징을 밝히고자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대상 및 범위

이 연구는 공간 분화가 뚜렷이 나타났던 와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제주도 와가는 경제적 여건이 배경이 되어 살림의 규모가 컸으므로 초가에 비하여 그 특이성을 밝히기가 용이하다. 또한 문화재로 등록된 가옥을 연구자료로 선정함으로써 자료의 타당성에 대한 역사적 고증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1973년에 실시한 <제주도문화재 및 유적 종합조사>를 통해 1986년 11월 14일 민속자료로 지정된 와가 총 6개를 연구자료로 선정하였다. 제주시 화북동의 1개 가옥과 조천읍 신촌리 2개 가옥, 조천리 3개 가옥이다.<sup>2)</sup>

- 1) 안·밖거리형은 원래 건물의 배치 형태를 일컫는 말이나, 주로 제주도의 초가에서 안채와 바깥채 각각에 부엌, 마루, 방이 설치되어, 자녀가 결혼을 하였을 때 한 울타리내이지만, 다른 건물에서 개별생활과 취사를 하는 것을 설명하기도 한다.
- 2) 제주의 와가는 품관인들이 모여살았던 제주시 삼

연구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한정하였다. 거주자의 생활양식, 평면의 특징, 가사노동공간의 특징을 파악하여 사례분석을 하고, 공간적 특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가사노동공간은 건물내부의 정지, 챗방, 고팡의 세 곳으로 선정하여 위치, 기능, 방위, 동선, 면적비율을 분석하였다.

### 2) 연구 방법

문헌연구와 현장연구의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였다. 문헌연구는 제주민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배치도, 평면도에 대한 형태적인 관찰을 하고, 현장연구는 문화인류학에 근원을 둔 문화기술학(Ethnography)<sup>3)</sup>의 방법으로 실측조사와 인터뷰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2000년 10월 1일~30일 사이에 5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 II. 조사 가옥의 고찰

### 1. 가옥의 일반적 사항

<표 1>과 같이 가옥의 건립연대는 최고 1820년대에서부터 1910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약 100년 정도 된 가옥들이다. 한 가옥의 건물의 수는 4채 이상이며, 대부분 세 칸 이상으로 초가에 비해 규모가 크다. <표 2>와 같이 가옥의 주인 혹은 근친 조상이 관직에 종사하였거나, 상업 또는 대규모 농업으로 경제적 부를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 민가의 규모로는 비교적 크

도동과 연륙포구인 화북동과 조천읍에 밀집되어 있었다. 특히 조천읍은 조선시대 관(館)을 두었던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온 진사 등이 생활하였고, 본토를 왕래하는 관문인 연북정(戀北亭)이라는 누각이 1820년(순조20년)에 마지막으로 보수되어 유적으로 보존되고 있다. 조천관을 중심으로 마을형성이 이루어져 더욱 번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3) 문화기술학(Ethnography)은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관찰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관찰 결과를 메모, 스케치하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사람들과 면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참여관찰과 개방형 질문형태가 주로 사용되는 이 방법은 질적 연구이므로 소수의 현장을 택하여 심도 있게 대상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다.

표 1. 가옥의 일반적 사항

가옥명*	지정번호	소재지	건립연대	건물규모	
K1가옥	제주도 지정민속자료 4-1	제주도 제주시 화북동 1640번지	1913년	안거리 : 전면 4간, 측면 2간 밖거리 : 전면 4간, 측면 2간 모거리 : 이문거리와 같은 채 이문거리** : 전면 4간, 측면 2간 이문 : 단간 기타 : 2간 초가	큰구들, 작은구들, 상방, 정지, 챗방, 고팡 구들2개, 상방3개, 고팡 구들, 쇠막(이문간 별도로 있음) ①쇠막 ②통시
K2가옥	제주도 지정민속자료 4-3	제주도 북제주군 복조천읍 조천리 2473-1번지	1900년대	안거리 : 전면 4간, 측면 2간 밖거리 : 전면 3간, 측면 2간 모거리 : 3간 초가 이문거리 : 전면 3간, 측면 2간 정지거리 : 3간 기타 : 2간 초가, 단간 초가	큰구들, 작은구들, 상방, 챗방, 고팡2 큰구들, 작은구들, 상방, 고팡 ×(건축당시 있었으나 불필요하여 없던 경우) 작은구들, 쇠막2 작은구들, 상방, 정지 ①작은구들, 상방 ②헛간 ③통시
K3가옥	제주도 지정민속자료 4-4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2523번지	1850년대	안거리 : 전면 3간, 측면 2간 밖거리 : 3간 초가 모거리 : 2간 초가 이문거리 : 단간 정지거리 : 2간 초가 기타 : 단간 초가	큰구들, 작은구들, 상방, 챗방, 고팡 ×(건축당시 있었으나 불필요하여 없던 경우) 작은구들2 -(출입문으로만 활용하는 경우) 작은구들, 상방, 정지 ①헛간 ②통시
H가옥	제주도 지정민속자료 4-5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2373번지	1910년대	안거리 : 전면 4간, 측면 2간 밖거리 : 전면 3간, 측면 2간 모거리 : 전면 4간, 측면 2간 이문거리 : 단간 기타 : 2간 초가, 1간초가	큰구들, 작은구들2, 상방, 정지, 챗방, 고팡 구들3, 상방2 구들, 정지, 고팡2 -(출입문으로만 활용하는 경우) ①헛간 ②통시
C1가옥	제주도 지정민속자료 4-6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2462번지	1822년대	안거리 : 전면 3간, 측면 2간 밖거리 : 전면5간, 측면 2간 이문거리 : 밖거리와 같은 채 정지거리 : 전면 3간, 측면 2간 기타 : 2간 초가	큰구들, 작은구들, 상방, 챗방, 고팡 작은구들4, 상방, 고팡, 쇠막 작은구들, 정지, 챗방, 헛간 ①헛간 ②통시
C2가옥	제주도 지정민속자료 4-7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2303번지	미상 (乙丑年으 로만 기록 됨)	안거리 : 전면 3간, 측면 2간 밖거리 : 전면 3간, 측면 1간 모거리 : 전면 3간, 측면 2간 이문거리 : 밖거리와 같은 채 정지거리 : 2간 초가 기타 : 단간 초가	큰구들, 작은구들, 상방, 챗방, 고팡 작은구들, 고팡, 쇠막 작은구들4, 상방, 챗방 작은구들, 정지, 챗방 ①헛간 ②통시

\* 문화재 지정당시의 소유주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피면담자가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영문약자로 표시함  
\*\* 이문거리는 때문에 부속실이 달려있는 경우이나, 단간이면서 대문만 있는 경우도 이문거리로 간주하였음

다. C1가옥의 경우 개인 소유의 방앗간이 있을 정도로 대농의 경향을 보였으며, K1·C2가옥처럼 포목상을 하여 상업에 의한 경제적 부가 축적된 경우도 있었다. K1·C1가옥에서 거주인이 특별한 직업없이 한학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 1>과 같이 건물의 배치 형식은 제주도의 전형적인 안·밖거리 형식을 취하고 있다.

## 2. 거주자의 일반적 사항

가옥의 건립당시 거주인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고용인이 반드시 있었고, 이들은 모거리나 이문거리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H가옥의 경우는 함께 기거하지는 않았으나, 정기적 혹은



사진 1. 제주도 와가 (H가옥)

비정기적으로 일을 돕는 사람이 고용되어 있었다. 안거리에는 대부분 부모와 미혼 자녀가 기거

표 2. 거주자의 일반적 사항

가옥명	가장	근친조상의 직업	동거인					생활양식
			안거리	밖거리	모거리	이문거리	정지거리	
K1 가옥	장남	조부:포목상,농업 부:도의원,한학,농업	부모, 미혼자녀	장남 내외	이문거리와 같은 채	고용인 2명	× ×	부모-자녀세대 생활분리, 취사공동
K2 가옥	장남	조부:평창·제주군수 부:한약상,농업	부모, 미혼자녀	장남 내외	×	남자고용인 3명	여자고용인 3명	부모-자녀세대 생활분리, 취사공동
K3 가옥	장남	조부:농업 부:농업	부모, 미혼자녀	×	임대	-	여자고용인 1명 남자고용인 1명	부모-자녀세대 생활분리, 취사공동
H 가옥*	장남	조부:농업 부:조천면장,농업	부모, 미혼자녀	장남 내외, 5남의 장인이 1년간 한 의원 일을 함	미혼자녀	-	× ×	부모-자녀세대 생활분리, 취사공동
C1 가옥	장남	조부:농업,한학 부:한학	부모, 미혼자녀	장남 내외, 남자 고용인 1명	정지거리와 같은 채	밖거리와 같은 채	여자고용인 1명	부모-자녀세대 생활분리, 취사공동
C2 가옥	장남	조부:포목상,농업 부:농업	모, 여자 고 용인 2명	장남 내외, 남자 고용인 1명	× ×	밖거리와 같은 채	-	부모-자녀세대 생활분리, 취사공동

- 건물은 있으나 생활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 건축당시는 있었으나 불필요하여 없앤 경우  
 ×× 건축당시부터 없는 경우  
 \* 남자 고용인 1명: 농장에서 거주, 여자 고용인 1명: 비정기적 출퇴근

하였으나, H가옥처럼 미혼자녀가 모거리에 분산되어 기거하는 경우도 있었다. C2가옥의 경우는 안거리에 조모가 여자 고용인과 함께 기거하였으며, 밖거리에는 일반적으로 장남내외와 그 자녀들이 기거하였다.

주생활과 식생활의 행태를 보면, 전통 초가에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한 울타리에 기거하면서도 개별 경제단위를 형성하면서 식사행위를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독립된 주거행태를 보인다(제주도민속자료, 1987). 그러나 와가에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안·밖거리로 생활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취사는 공동으로 하였다. K1·H가옥에서는 조리와 식사가 동일건물에서 이루어졌으며, K2·K3·C1·C2가옥에서는 조리와 식사가 별개의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방식을 보였다.

### Ⅲ. 가사노동공간의 분석

조사대상 가옥은 정지의 위치에 따라 안거리에 정지가 위치하는 <안거리 정지형>과 정지거리라는 독립건물에 정지가 위치하는 <정지거리

별동형>으로 분류하였다. 안거리 정지형은 K1·H가옥에서 나타나며, K1가옥에는 정지가 1개, H가옥에는 정지가 2개 있다. 정지거리 별동형인 K2·K3·C1·C2가옥은 정지거리라는 가사노동전용의 독립건물에 정지가 각각 1개씩 있다. 안거리 정지형의 정지는 챗방으로 연결되어 있고, 정지거리 별동형은 챗방이 안거리에 별도로 있고, 정지거리의 정지 옆에도 챗방이나 상방이 있다. 고팡은 구들 후면에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 1. 안거리 정지형

안거리 정지형은 조리와 식사가 동일건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으로, 챗방은 정지와 인접해 있고, 고팡은 상방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정지의 위치는 K1가옥은 안거리 좌측 전면에 있고, H가옥의 안거리 정지는 좌측 전면에 있다. 특히 모거리의 정지는 조사 대상 가옥 중 유일하게 건물의 후면에 배치되어 있고, 챗방없이 상방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다. 안거리 정지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모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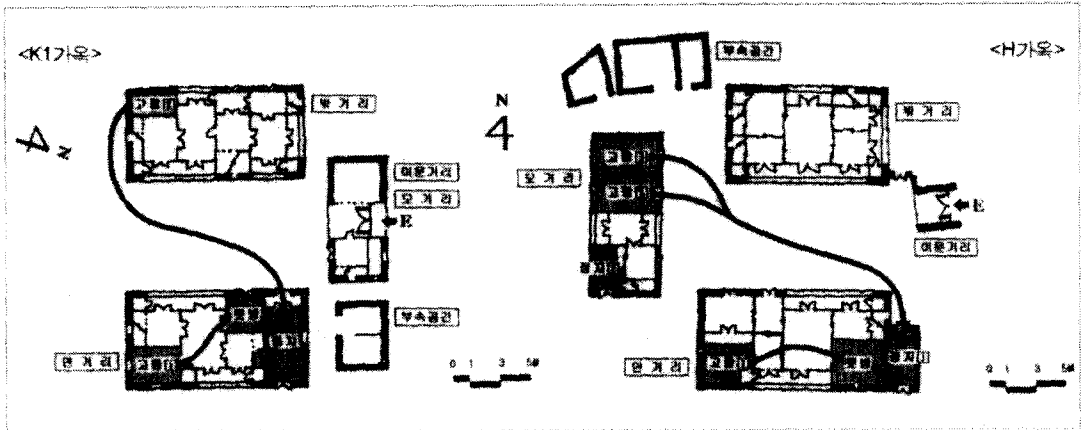


그림 1. 안거리 정지형 외가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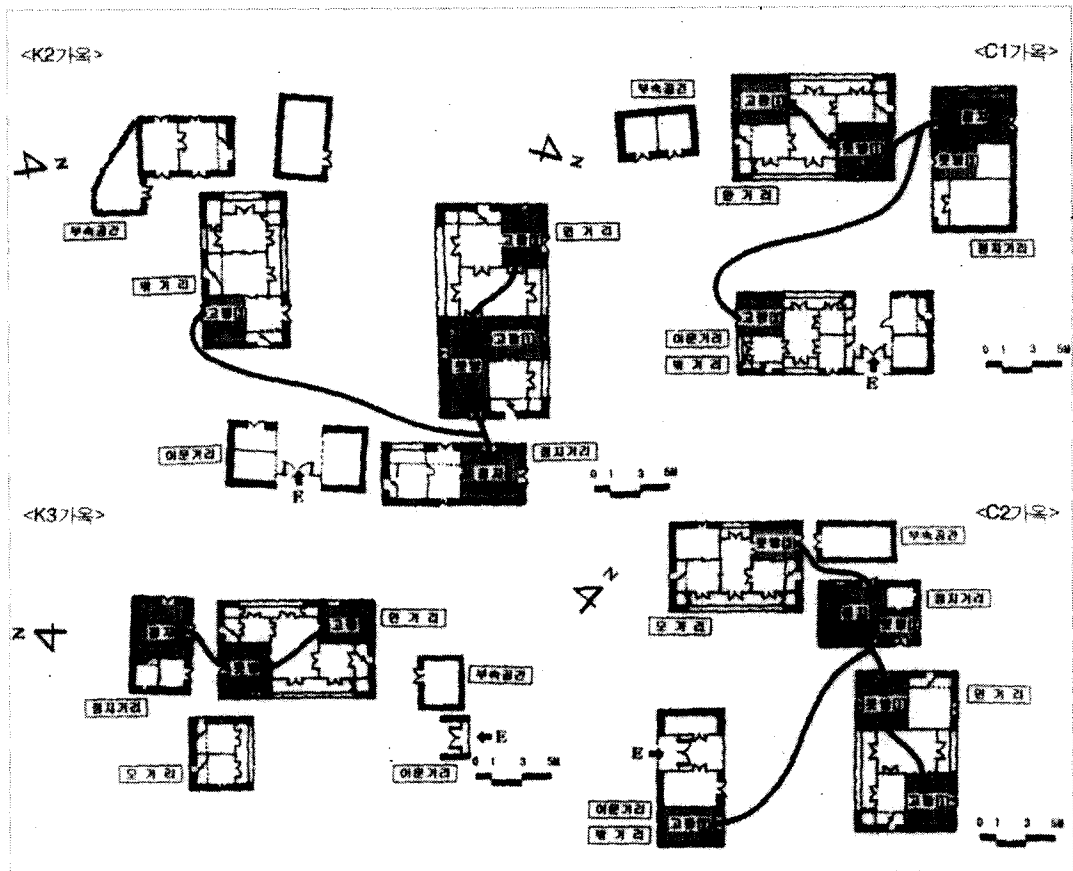


그림 2. 정지거리 별동형 외가의 평면도

표 3. 안거리 정지형의 가사노동공간

가옥명	정 지	챗 방	고 팡	
K1가옥	위 치*	안거리 좌측 전면	안거리 좌측 전면	1.안거리 우측 후면 2.밖거리 좌측 후면
	기 능	조리	식사, 배선, 조리 준비	곡물 저장
	방 위	북서	북서	1.안거리 고팡-남동 2.밖거리 고팡-남서
	동 선	조리: 안거리 고팡→(상방)→(챗방)→정지↔챗방 식사: 챗방(여자어른, 자녀)→상방(남자손님)→구들(남자주인)		
	면적비율	21.52%(정지 9.48%, 챗방 3.71%, 고팡 8.33%)		
H가옥	위 치*	1.안거리 좌측 전면 2.모거리 좌측 후면	안거리 좌측 후면	1.안거리 우측 후면 2.모거리 우측 전면 3.모거리 우측 전면
	기 능	조리	식사, 배선, 조리 준비 집안 대사시 보조정지역할	곡물 저장
	방 위	1.안거리 정지-북동 2.모거리 정지-남서	남동	1.안거리 고팡-남서 2.밖거리 고팡-북동 3.밖거리 고팡-북동
	동 선	조리: 안거리 고팡→(뒷난간)→(상방)→(챗방)→정지↔챗방 식사: 챗방(여자어른, 자녀)→상방(여름 남자어른, 자녀)→구들(남자주인)		
	면적비율	24.81%(정지 6.80%, 챗방 5.28%, 고팡 12.73%)		

\* 건물앞에서 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임

정지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 예비 정지로서만 존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챗방의 위치는 K1가옥은 안거리 좌측전면에 있고, H가옥은 조사대상 가옥 중 유일하게 후면에 배치되어 있다. 고팡의 위치는 K1가옥은 안거리 우측 큰구들 후면과 밖거리에는 좌측 구들 후면에 1개씩 있다. H가옥은 안거리 우측 큰구들 후면에 1개, 모거리 우측 전면에 2개가 있다.

각 공간의 기능은 K1·H가옥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정지에서는 음식의 조리 등 주로 식생활과 관계된 가사노동이 이루어졌다. 챗방은 주로 여자 어른과 자녀들의 식사행위가 이루어졌으며, 기일제사나 대사(大葬)시에는 보조정지로서의 활용도가 높았다. 그러나 남자 어른이나 손님의 식사행위는 상방이나 구들에서 이루어졌다. 고팡은 현대의 창고의 기능과 유사하여 주로 곡물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각 공간의 방위를 보면 K1가옥에서는 고팡이 남동과 남서로 되어있고, H가옥에서는 챗방이

남동으로 되어 있어 가장 좋은 방위를 가졌다. 이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안거리와 마당을 중심으로 정지와 챗방은 전면에 배치시키고, 고팡은 후면으로 배치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공간과 집터의 방위는 풍수설과 제주의 무속신앙이 결합되어 집주인의 생년월일시에 따라 정해졌고(김석운, 1996), 제주도의 무속신 중에 오방토신<sup>4)</sup>을 섬기는 것은 그 예라 볼 수 있다.

취사행위를 위한 동선은 <표 3>과 같이 안거리 고팡에서 상방과 챗방을 거쳐 정지로 이어지며, 챗방과 정지는 상호 보완적인 이동이 빈번했다. 음식이 지어지면 챗방에서 남자 어른들의 상을 먼저 차리고, 여름에는 주로 상방까지, 봄·가을·겨울에는 큰구들까지 상을 옮겼다. 바닥 마감은, 정지는 흙바닥이고 챗방과 고팡은 마루

4) 제주 전통주택의 가신에는 정지신인 조왕신, 고팡의 쌀독을 지켜주는 안칠성 등이 있는데, 그 중 오방토신은 집터를 각 방위별로 지켜주는 신이다.

표 4. 정지거리 별동형의 가사노동공간

가옥명	정 지	챗 방	고 팡	
K2가옥	위 치	정지거리 좌측 전면	안거리 우측 전면	1.안거리 우측 후면 2.안거리 좌측 후면 3.밖거리 좌측 후면
	기 능	조리	식사, 배선, 조리 준비	곡물 저장
	방 위	북서	남동	1.안거리 고팡-북동 2.안거리 고팡-북서 3.밖거리 고팡-남동
	동 선	조리: 안거리 고팡→(챗방)→(정지거리 마당)→정지↔챗방 식사: 안거리 챗방(여자)→상방(남자)→구들(남자) 고용인 식사: 정지거리 상방		
	면적비율	24.28%(정지 5.46%, 챗방 7.44%, 고팡11.37%) / 30.53%**		
K3가옥	위 치	정지거리 우측 전면	안거리 좌측 전면	안거리 우측 후면
	기 능	조리	식사, 배선, 조리 준비	곡물 저장
	방 위	북동	북서	남동
	동 선	조리: 안거리 고팡→(상방)→(챗방)→(정지거리 마당)→정지↔챗방 식사: 안거리 챗방(여자어른)→상방(남자어른)→구들(남자주인) 고용인 식사: 정지거리 상방		
	면적비율	32.52%(정지 13.23%, 챗방 10.53%, 고팡8.77%) / 39.54%**		
C1가옥	위 치	정지거리 좌측 전면	안거리 우측 전면 정지거리 중앙 전면	1.안거리 좌측 후면 2.밖거리 우측 전면
	기 능	조리	식사, 배선, 조리 준비	곡물 저장
	방 위	남서	북동	1.안거리 고팡-남서 2.밖거리 고팡-남서
	동 선	조리: 안거리 고팡→(상방)→(챗방)→(정지거리마당)→정지↔챗방 식사: 안거리 챗방(여자어른, 자녀)→상방(남자어른, 자녀)→구들(남자주인) 고용인 식사: 정지거리 챗방		
	면적비율	31.41%(정지 9.85%, 챗방 10.91%, 고팡10.65%) / 44.29%**		
C2가옥	위 치	정지거리 좌측 전면	1.안거리 좌측 전면 2.정지거리 우측 전면 3.모거리 우측 후면	1.안거리 우측 후면 2.밖거리 좌측 전면
	기 능	조리	식사, 배선, 조리 준비	곡물 저장
	방 위	북서	북서	1.안거리 고팡-북동 2.밖거리 고팡-남동
	동 선	조리: 안거리 고팡→(상방)→(챗방)→(정지거리 마당)→정지↔챗방 식사: 안거리 챗방(여자어른, 자녀)→상방(남자어른, 자녀)→구들(남자주인) 고용인 식사: 정지거리 챗방		
	면적비율	33.80%(정지 9.04%, 챗방 12.91%, 고팡11.86%) / 35.49%**		

\* 건물앞에서 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임

\*\* 정지거리를 가사노동공간으로 모두 포함시킨 비율

로 되어 있어서 정지와 챗방과의 단차에서 오는 가사노동의 동선은 현대주택보다 길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 면적 중 정지, 챗방, 고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K1가옥 22%, H가옥 25%로서 평균 23%를 나타냈다. 정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K1가옥 9%, H가옥 7%이며, 챗방은 K1가옥 4%, H가옥 5%, 고팡은 K1가옥 8%, H가옥 13%로 나타나, 이는 현대주택의 가사노동공간보다 훨씬 높

은 비율로 볼 수 있다. 또한 조리공간인 정지가 챗방, 고팡에 비하여 점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2. 정지거리 별동형

정지거리 별동형은 조리와 식사가 별개의 건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으로, 챗방은 정지와 인접해 있으나, 안거리에도 챗방이 있으며, 고팡은 안거리 정지형처럼 주로 상방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K2·K3·C1·C2가옥이 해당되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공동취사를 하였다.

정지의 위치는 모두 전면에 1개씩 배치되어 있으며, K3가옥은 정지거리 우측면에 있고, K2·C1·C2가옥은 좌측면에 있어서 안거리 챗방과의 연결을 고려한 배치로 볼 수 있다. 챗방의 위치는 모두 안거리 전면에 배치되어 있어서, 초가에서 챗방이 주로 후면에 위치해 있는 것(김영식, 1996)과는 대조적이다. C1가옥은 정지거리 중앙에 챗방이 하나 더 있어서 2개이고, C2가옥에는 정지거리, 모거리에 하나씩 더 있어서 총 3개이며, 정지거리 챗방에서는 주로 고용인들이 식사를 하였다. K2·K3가옥의 정지거리에는 챗방에 준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상방이 있고 챗방과 동일한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정지의 보조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팡은 K3가옥 1개, C1·C2가옥 2개, K2가옥에 3개가 있다. 고팡은 곡물을 저장하는 기능이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초가에 비해 고용인을 포함한 거주인도 많았고, 경제단위가 컸던 와가에서 그 수가 많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팡의 위치를 고려할 때 창고의 성격이 강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구들 옆에 있었던 것은 과거의 생활상이 생업을 위한 가사와 작업 및 저장용도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며, 도난 방지를 위해 특히 취침시 가장 통제하기 쉬운 구들 옆에 붙여 놓은 것이다(제주의 민속IV, 1996). 또한 제주도의 온난다습한 기후와 바람과 태풍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각 공간의 기능 및 방위는 안거리 정지형인 K1·H가옥의 내용과 같다.

동선관계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지거리 별동형인 경우 정지거리 앞 마당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동선이 안거리 정지형보다 더 길어졌으나, 고용인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생활공간과 노동공간을 분리시킴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된다.

건물의 전체 면적 중 정지, 챗방, 고팡이 차지하는 비율은 K2가옥 24%, K3가옥 33%, C1가옥 31%, C2가옥 34%로 평균 31%를 나타냈고, 정지거리를 가사노동공간으로 보았을 때는 평균 37%로 안거리 정지형보다 14% 정도 넓게 나타났다. 이것은 초가의 정지가 차지하는 비율 23.35%(제주건축II, 1992)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서,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서 가사노동공간의 면적도 증가하여, 가사노동의 기능분화는 더욱 뚜렷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K2·C1·C2가옥에서 챗방이 정지보다 넓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옥의 건립당시 가옥주는 관직에 있거나, 상업 또는 농사의 규모가 커서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했던 소수의 상류층이었다. 장남내외는 밖거리에 기거하였으며 하나의 부엌공간에서 공동취사를 하는 단일 경제체제였다. 이것은 제주도 전통 초가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안·밖거리로 나뉘어 개별경제체제를 이루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형식이다.

2) 각 공간의 방위는 풍수설과 제주 고유의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안거리와 마당을 중심으로 정해졌다. 동선을 보면 정지거리 별동형의 경우 마당을 통과해야 하므로 동선이 매우 길어져 비능률적이었다. 전체 건물 면적 중 정지, 챗방, 고팡이 점유하는 비율을 보면 안거리 정지형은 평균 23%였고, 정지거리 별동형인 경우는 평균 37%로 정지거리 별동형의 가사노동공간의 점유 비율이 14%정도 높았다.

3) 정지의 부속형태에 따라 안거리에 정지가 위치하는 안거리 정지형과 정지거리라는 독립건물에 정지가 위치하는 정지거리 별동형의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났다.

4) 안거리 정지형에서 정지의 전실로서 챗방이라는 공간이 있고, 정지거리 별동형에서는 정



지 옆에 챗방 또는 챗방과 같은 마감 형식의 상방이 있으며, 안거리의 챗방과 마주하고 있다. 챗방이 보조부엌과 식당의 기능을 하였고 이는 근대적 의미의 공간분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주도 주택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현재 K2·K3·C2가옥의 경우 증개축의 이유에서 민속자료지정이 해지되었고, 전통건축기술 보유자수의 감소로 제주 와가의 변형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정지는 화학연료의 사용으로 변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기술적 차원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대의 주거공간과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때,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사노동공간의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강봉생(1985), 제주도 안·밖거리형 살림집의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강순주·김상희(1997), 현대주거학, 교문사.
3. 강영환(1993),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4. 강행생(1985), 제주도 안·밖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성에 관한 조사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김석운(1996),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김영식(1996), 제주 주택의 생활공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김용집(1983), 한국 전통 주거 건축의 공간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김혜숙(1993), 제주도 가정의 혼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 송병언(1998), 생활문화로 본 제주민가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송성대(1990), 한국 도서지방 초옥민가의 지역성,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이경희 외(1994), 주거학개설, 문운당.
12. 이광노 외(1998), 건축계획, 문운당.
13. 이민섭(1963), 한국 주거 형태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이희봉 역(1988), 참여관찰방법, 대한교과서.
15. 제주도건축사회(1992), 제주건축 제2집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정문사.
16. 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편(1987), 제주도민속자료, 제주도.
17. 제주도지편집위원회(1996), 제주의 민속IV, 제주도.
18.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1992), 제주시의 향토민속, 제주인.
19. 조성기(1984), 한국 남부 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 최영기·서상우(1995), 유교 사상이 주거공간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季論.
21. '99건축문화의 해 제주지역추진위원회(1999), 제주의 건축, 상지문화.